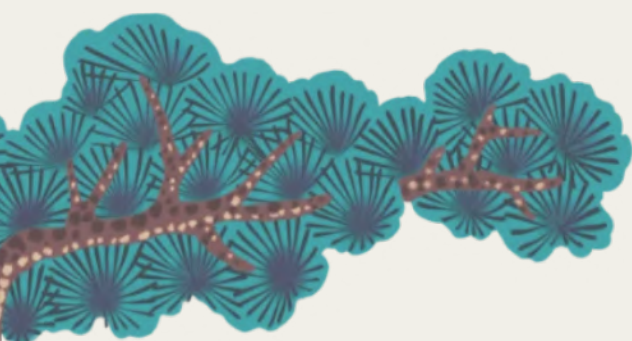


ハングルの裏に隠れた漢字の話

# 韓国は漢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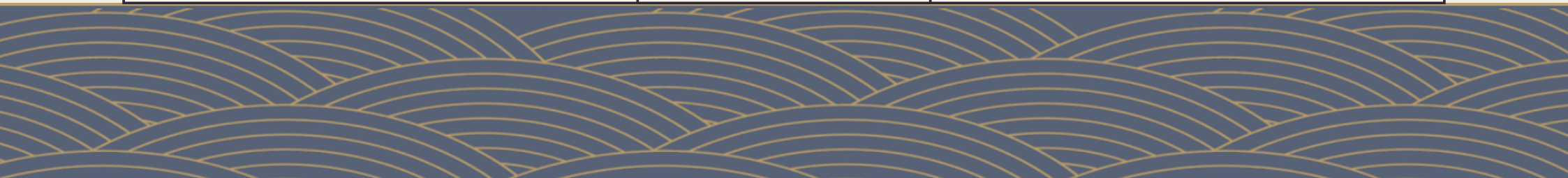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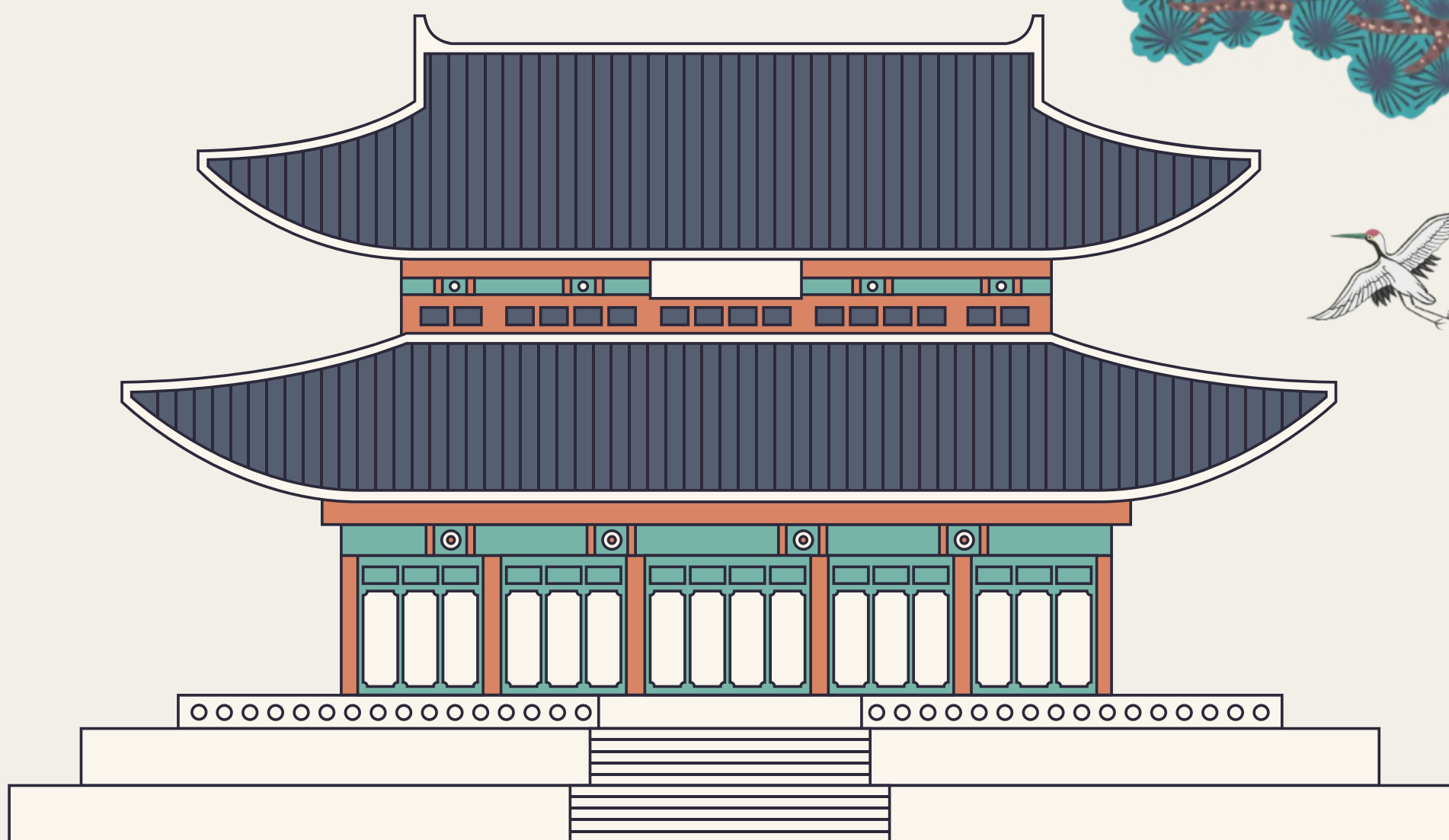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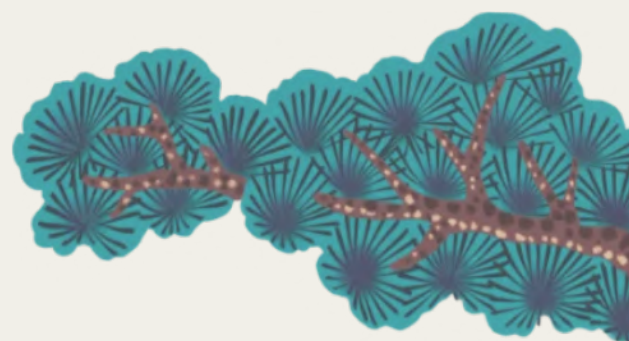
## 使わない？

6月号 CIR スポット



観光スポーツ文化部国際課

国際交流員 | パク・イエウォン



## はじめに：交流の現場で出会った質問

山口で国際交流員（CIR）として働いていると、日本語の話題になるたびに、私はよくこんなことを言います。

「日本語で会話するのはある程度慣れてきたんですが、漢字はまだどうしても難しくくて」するといつも、驚いた様子でこんな質問が返ってきます。

「韓国も漢字を使いますよね？」

「漢字文化圏じゃないですか？」

もっともな質問です。

韓国が漢字文化圏であることは、紛れもない事実ですから。

ただ、ここには少し興味深い認識のギャップが隠れています。

韓国は漢字のない国ではなく、「目に見えない形で」漢字を使っている国なのです。このレポートでは、その背景と理由をひとつひとつ解きほぐ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 ハンゲルという服を着た漢字語

韓国の街を歩くと、看板も、駅広告も、どこを見てもハンゲルばかりです。漢字はいくら探しても見当たりません。では本当に、韓国から漢字は消えてしまったのでしょうか？  
答えは「いいえ」です。

現代韓国語の語彙の約60～70%は漢字語です。

ニュース・法律・行政の分野に絞れば、90%以上が漢字語になるほどです。

漢字は消えたのではなく、ハンゲルという服を着て、その中に息づいているのです。

下の表のように、日本語と韓国語の単語を並べて比べてみると、この構造がよりはっきりと見えてきます。

日本語表記	漢字原形	韓国語表記	韓国語発音
学校	學校	학교	hakgyo
電話	電話	전화	jeonhwa
図書館	圖書館	도서관	doseogwan
経済	經濟	경제	gyeongje
家族	家族	가족	gajok
防火/放火	防火 / 放火	방화 / 방화	banghwa (同じ発音)

表の一番下にある「방화 (バンファ)」という単語に注目してください。日本語では、火を防ぐ「防火 (ぼうか)」と火をつける「放火 (ほうか)」が漢字のおかげですぐに区別できますよね。

ところが韓国語では、どちらも同じく「방화」と書きます。

「それじゃ紛らわしくないですか？」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韓国人は「建物に防火壁を設置した」「昨日放火事件が起きた」というように、前後の文脈から自然に読み分けています。ニュースや公文書など、明確な区別が必要な場面では「방화 (放火)」のように括弧内に漢字を添えることもあります。

## 韓国 の 街 から 漢字 が 消 え た 本 当 の 理 由

意味の根っこは漢字なのに、なぜわざわざ漢字で書かないのでしょうか。そこには、韓国の歴史と政策が刻んだ、少し温かい秘密が隠されています。

### 1) 世宗大王の温かい思い：「すべての人のための文字」

約600年前の15世紀（1443年）、朝鮮の王であった世宗大王はハングルを作りました。当時は難しい漢字しか使われていなかったため、貴族階級だけが文字を読み書きでき、一般の民は文字を知らないまま、理不尽な目に遭うことも少なくありませんで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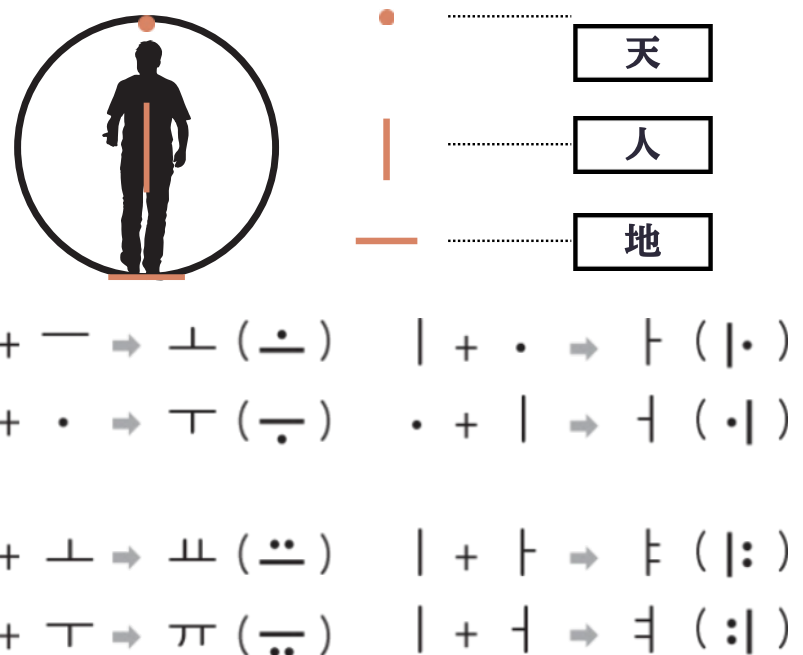


ハングルを作った当時、世宗大王の思いは明確でした。「民であれば誰もが、文字を易しく読み書き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こうして生まれたハングルは、その構造が非常に科学的で、やる気さえあれば数日で習得できる、世界で最も学びやすい文字となりました。

子音：基本字5つは、人の発音器官をかたどって作られました。残りの子音字は、基本字に画を加えて作られました。



母音：基本字3つは、天・地・人の姿をかたどって作られました。残りの母音字は、基本字を組み合わせで作られました。



## ハングルの創製原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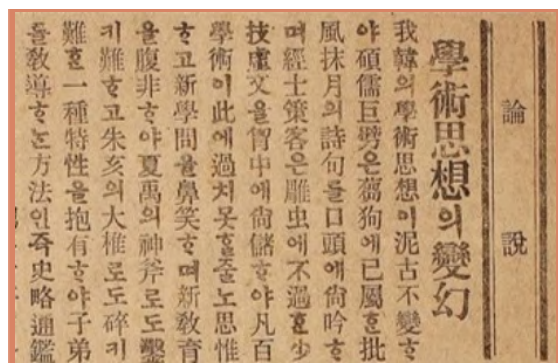
## 2) 国の決断：「公式文書はハングルだけで書こう！」

時は流れ、1948年、大韓民国政府の樹立直後に「ハングル専用法」が制定されます。公文書は国民誰もが読めるよう、ハングルのみで書くという原則でした。

その後1970年代からは、教科書・新聞・放送でも漢字を段階的に廃止し、ハングルだけを使うようになりました。

漢字が自然に消えていったのではなく、「すべての国民が文字に平等にアクセスできる社会を作るため」の、政策的な選択の結果だったのです。

その影響もあってか、韓国では世代によって漢字の扱いがまったく異なるという、興味深い現象も生まれました。



1910年代の韓国新聞  
〔大韓毎日申報〕

出典：国家遺産庁 国家遺産ポータル



2026年の韓国の街並み  
撮影場所：釜山広域市 沙上区

- **50代以上** 幼い頃から学校で漢字を学び、新聞にも漢字が混在していた時代を過ごした世代です。読み書きともに得意な方が多いです。
- **30～40代** ハングル中心の教育を受けながらも、漢文の授業も並行していた過渡期の世代です。読むことはある程度できても、実際に書こうとするとつまづく場合が多いです。
- **10～20代** 生まれた時からハングル環境で育った世代です。スマートフォンも教科書もすべてハングル中心のため、漢字を書く機会がほとんどなく、基本的な漢字でも馴染みが薄いと感じる人が多いようです。

## 韓国語と日本語が似て聞こえる理由

韓国語を少しでも勉強したことがある方は、「학교 (ハッキョ)」と「学校 (がっこう)」、「전화 (チョナ)」と「電話 (でんわ)」のように、特定の単語の発音が似ていて驚いた経験があ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これも漢字のおかげです。日本語の音読みと韓国語の漢字発音は、はるか昔の古代中国語という共通の源流から枝分かれしたもののだからです。

このことを知ると、韓国語の単語学習がぐっと楽になります。日本語の音読みと韓国語の漢字発音の間には、一定の対応規則があるからです。

- 日本語 '~学' → 韓国語 '~학(hak)'  
(哲学 ⇔ 철학[チョラク])
- 日本語 '~的' → 韓国語 '~적(jeok)'  
(科学的 ⇔ 과학적[クァハクチョク])
- 日本語 '~館' → 韓国語 '~관(gwan)'  
(博物館 ⇔ 박물관[パンムルグァン])

韓国語の漢字と  
日本語の発音対応規則

こうした規則を頭に入れておくと、見慣れない韓国語に出会っても、ある程度意味を推測することができ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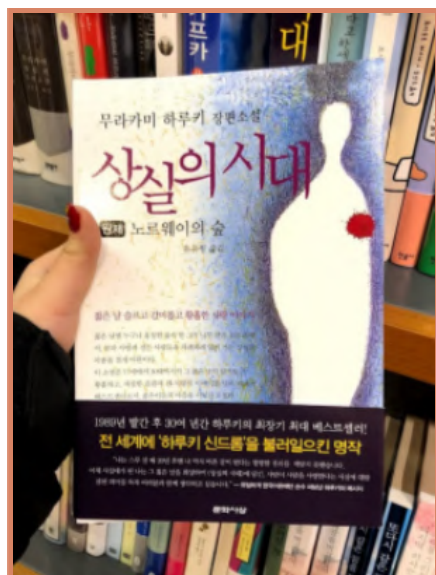
漢字が目に見えなくても、韓国語をしっかりと支える骨格として、漢字は確かに存在しているのです。

## おわりに：見えないだけで、消えてはいない

最初の質問に戻ってみましょう。

「韓国では漢字を使わないんですか？」  
今ならこう答えることができます。

「韓国語の単語のほとんどは、その根っこに漢字を持っています。ただ、書き表すときにハングルという便利な服を着ているだけです。漢字は目に見えないだけで、ハングルの裏にいつも存在しています。」



日韓ブックカバー

日本が漢字と仮名を併用することで読みやすさを追求してきたとすれば、韓国はハングル中心の表記体系を選ぶことで、誰もが読み書きしやすい、より平等な言語環境を作ってきました。これは優劣の問題ではなく、言語と社会に対するそれぞれの選択の結果だと言えるでしょ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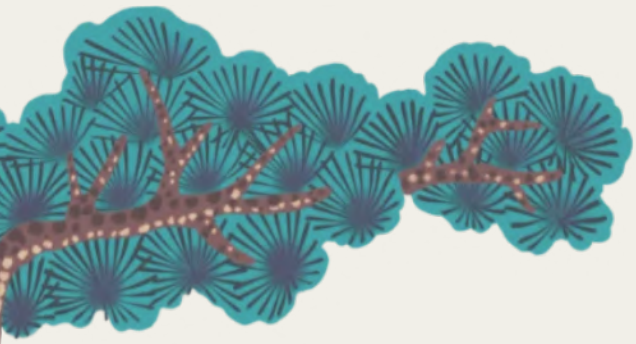
これから韓国ドラマを見たり、韓国語を勉強したりする際には、目には見えない漢字の存在をふと思い出してみてください。四角いハングルの単語たちが、もう見知らぬ記号ではなく、すでに馴染みのある漢字の別の姿として感じられてくるはずです。

한글 뒤에 숨겨진 한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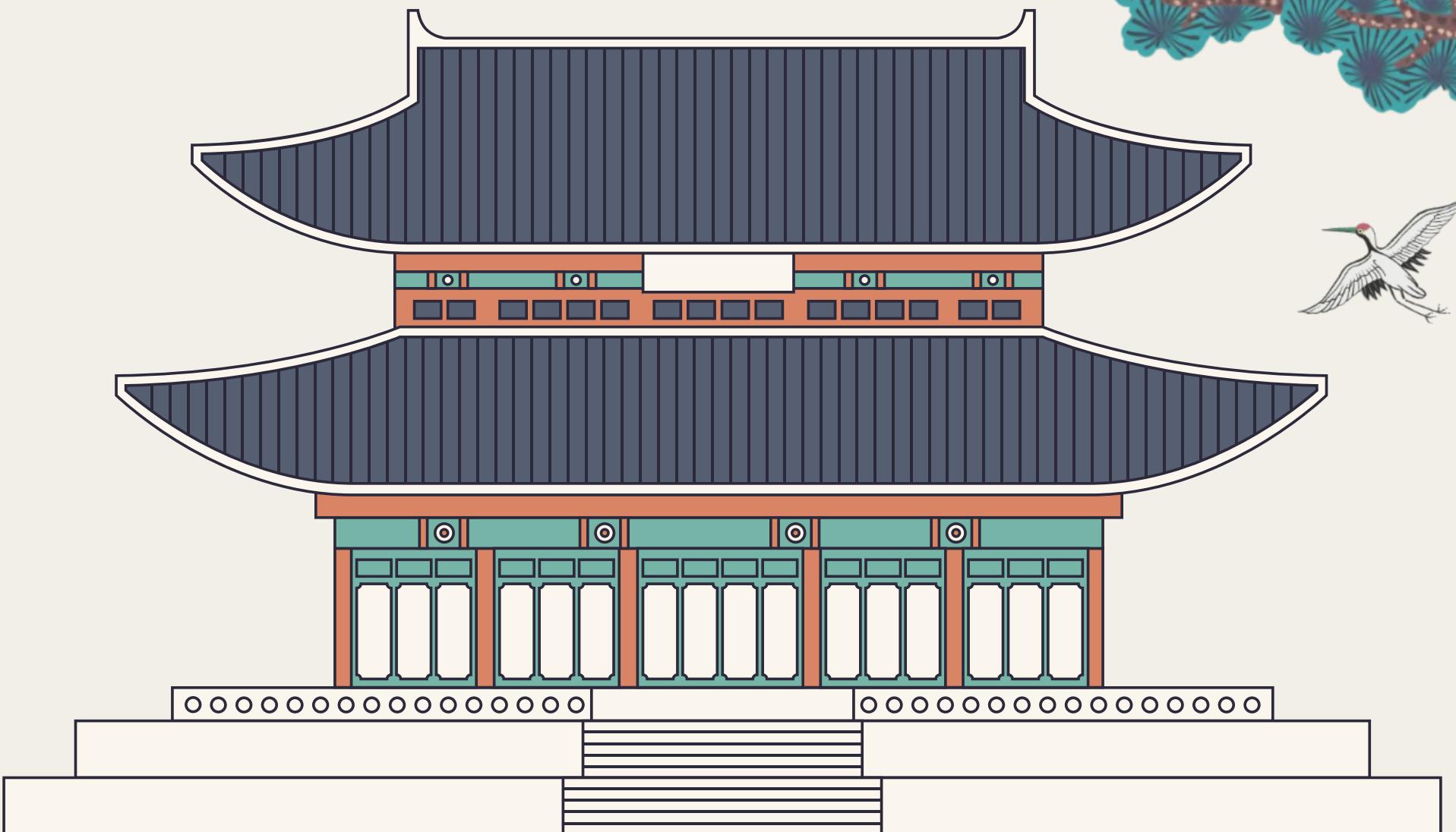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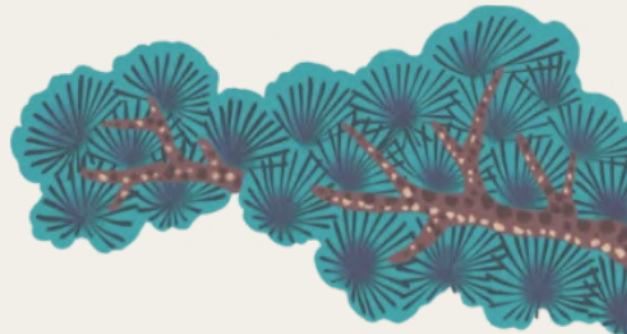
# 한국은 한자

## 안쓰나요?

6월호 CIR 케포트



관광스포츠문화부 국제과  
국제교류원 | 박예원



## 들어가며: 교류의 현장에서 마주한 질문

야마구치에서 국제교류원(CIR)으로 일하다 보면,  
일본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꺼냅니다.

"일본어로 대화하는 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한자는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김없이 놀란 표정과 함께  
이런 질문이 돌아오곤 합니다.

"한국도 원래 한자를 쓰지 않나요?"

"한국도 한자문화권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만한 질문입니다.

한국이 한자문화권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다만 여기에는 꽤 흥미로운  
인식의 간극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한자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그 배경과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 한글이라는 옷을 입은 한자어

한국 거리를 걷다 보면 간판도, 스마트폰 화면도 온통 한글뿐입니다.

한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눈에 띄지 않죠.

그렇다면 정말 한국에서 한자가 사라진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현대 한국어 어휘의 약 60~70%는 한자어입니다.

뉴스·법률·행정 분야로 좁히면 90% 이상이 한자어일 정도죠.

한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글이라는 옷을 입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래 표처럼 일본어와 한국어 단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이 구조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본어 표기	한자원형	한국어 표기	한국어 발음
学校	學校	학교	hakgyo
電話	電話	전화	jeonhwa
図書館	圖書館	도서관	doseogwan
經濟	經濟	경제	gyeongje
家族	家族	가족	gajok
防火/放火	防火 / 放火	방화 / 방화	banghwa (발음 같음)

표의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방화'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일본어에서는 불을 막는 '防火(보우카)'와 불을 지르는 '放火(호우카)'가 한자 덕분에 바로 구분되죠.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둘 다 똑같이 '방화'라고 씁니다.

"그럼 헷갈리지 않나요?"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건물에 방화 벽을 설치했다", "어제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처럼 앞뒤 문맥으로 자연스럽게 구분합니다. 뉴스나 공문서처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화(放火)'처럼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표기하기도 합니다.

# 한국의 거리에서 한자가 사라진 진짜 이유

뜻의 뿌리는 한자인데, 왜 굳이 한자로 적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한국의 역사와 정책이 담긴 꽤 따뜻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 1)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 "모두를 위한 문자"

약 600년 전인 15세기(1443년), 조선의 왕이었던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려운 한자만 사용하다 보니 귀족계층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고, 평범한 백성들은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글을 만들 당시 세종대왕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백성이라면 누구나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태어난 한글은 구조가 아주 과학적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단 며칠 만에 배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자가 되었습니다.

자음: 기본자 5개는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 나머지 자음 글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

모음: 기본자 3개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들. 나머지 모음 글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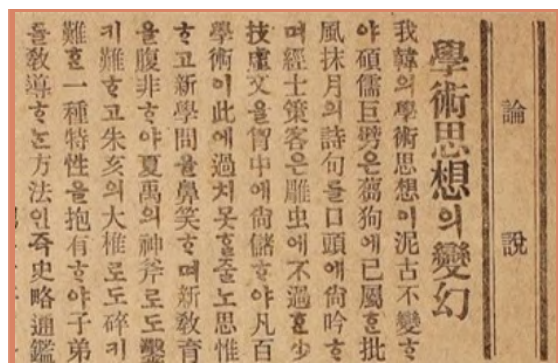
## 한글 창제원리

## 2) 나라의 결정: "공식 문서에는 한글만 쓰자!"

시간이 흘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한글전용법'이 제정됩니다. 공문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만 작성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교과서, 신문, 방송에서도 한자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한글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는 저절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문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세대별로 한자 실력이 제각각인 흥미로운 현상도 생겨났습니다.



1910년대 한국 신문  
[대한매일신보]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www.heritage.go.kr)



2026년 한국 거리 모습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 **50대 이상** 어릴 때 학교에서 한자를 배웠고 신문에도 한자가 혼용되던 시절을 보낸 세대로, 읽기·쓰기 모두 능숙한 편입니다.
- **30~40대** 한글 중심 교육을 받았지만 한문 수업도 병행하던 과도기 세대입니다. 읽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해도, 직접 쓰려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10~20대** 태어날 때부터 한글 환경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스마트폰도 교과서도 모두 한글 중심이라 한자를 쓸 기회가 거의 없고, 기본적인 한자도 낯설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어와 일본어가 비슷하게 들리는 이유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학교"와 "学校(がっこう)", "전화"와 "電話(でんわ)"처럼 특정 단어들의 발음이 비슷해서 놀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자 덕분입니다. 일본어의 음독(音読み)과 한국어의 한자 발음은 아주 먼 옛날 고대 중국어라는 공통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한국어 단어 학습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일본어 음독과 한국어 한자 발음 사이에는 일정한 대응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일본어 '~학(学,gaku)' → 한국어 '~학'  
(科学 ⇄ 과학, 哲学 ⇄ 철학)
- 일본어 '~적(的,teki)' → 한국어 '~적'  
(科学的 ⇄ 과학적, 一般的 ⇄ 일반적)
- 일본어 '~관(館,kan)' → 한국어 '~관'  
(図書館 ⇄ 도서관, 博物館 ⇄ 박물관)

한국어 한자와 일본어 발음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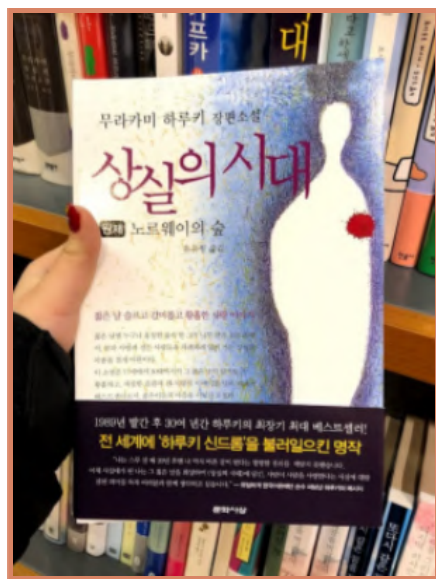
이런 규칙들을 알아두면, 낯선 한국어를 만나도 어느 정도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자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한국어의 든든한 뼈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자입니다.

## 마치며: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국에서는 한자를 안 쓰나요?"  
이제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단어의 뿌리는 대부분 한자에 있습니다.  
다만 표기할 때는 한글이라는 편리한 옷을 입을 뿐입니다.  
한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한글 뒤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일 책 표지

일본이 한자와 가나를 병용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면, 한국은 한글 중심의 표기 체계를 선택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보다 평등한 언어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와 사회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어를 공부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한자의 존재를 한 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모난 한글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선 기호가 아니라, 이미 익숙한 한자의 또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